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부모를 즐겁게하라

성경: 잠언 23장 22-26절

Tag:

22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3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잠23:22-26)

우리나라는 옛부터 효도의 나라다.

조선시대에는 충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았다.

성경의 부모 공경 사상은 조선시대의 충효와는 그 결이 다르다.

성경의 부모 공경은 실제적이며, 현실적이며 법적이다.

조선시대의 충효는 국가의 통치이념이면서 윤리강령이고, 그 뿌리는 종교적이다. 그러다 보니 충효에 대한 지나친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충효백과사전의 두께도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에는 한국효문화진흥원도 있다!

한국효문화 자료보감만 해도 수집된 자료가 2304개나 된다.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다.

국가가 이를 장려함. (오늘날도 국가 기관에 의해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음)

이유탉(李惟澤)

•시대 : 조선시대(1600~1668) •본관 : 경주

이유탉의 본관은 경주, 자는 택지(澤之), 자는 유곡(柳谷)이고, 초려 이유탉태의 형입니다.

이유탉은 어머니가 69세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자 상을 치를 때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물을 제대로 넘기지 못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집안사람들이 이유탉의 건강을 걱정해서 밥상에 맛있는 음식을 올리면 곧바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유탉은 세 달 동안 무덤을 지키며 상복을 벗지 않았고, 3년 상을 지내며 한번도 상복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이후 3년 상이 끝나자 몸이 너무 약해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1674년(현종 15)에 명정을 내리고 정려를 세웠습니다.

1년 뒤에는 동생 이유탉태가 중수기를



효자 이유탉 정려.

효문화진흥원 제공

지었고, 1980년에 후손들이 보수하고 중건했습니다

효자 이유탉 정려는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정문길 18-1에 있습니다.

※참고문헌 「한국효문화자료보감(충청남도편)」, 「금산군지」, 「여지도서」, 「송자대전」

① 대전 동구 삼괴동 소룡마을 입구에는 김재만의 효자 정려가 있습니다.



김재만은 작은 아버지 김태열에게 자손이 없자 그 집에 입양되었습니다.

② 어린 나이에 낳아준 어머니를 떠나 작은 아버지 손에서 길러진 김재만은,



성품이 온순하고 효심이 지극하여 항상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렸습니다.

③ 양자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9살 때,



양아버지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④ 양어머니와 함께 온갖 약을 구해 치료와 간호에 정성을 다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소로 올라가 애통해 하기를 3년,



불행하게도 한 쪽 눈이 눈물에 찢물러 실명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⑥ 3년상을 마친 뒤 어머니를 모심에 더욱 정성을 다하였지만,



어머니마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⑦ 긴 병수발로 봉양할 돈이 떨어져 산에 올라 나무를 해 약을 구하고



틈나는 대로 냇가에서 손기를 잡아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⑧ 그의 효행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께서 칭찬하시며,



널리 후세에 교훈이 되게 하라고 조봉대부 동몽교관이라는 벼슬, 현판과 정려를 내려 주었습니다.

많은 경우 효행기록에 보면 산신령이 나타나거나, 엄동설한에 살구를 얻게되었다는 등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효자의 무덤을 이장하려고 파 보니 학 한 마리가 날아갔다는 등 기이한 이야기가 많다.

충효사상은 조상신을 모시는 유교의 핵심 교리가 되어 한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어마어마한 율법주의를 양산하여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였다.

한국 기독교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순교당했다.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그래도 이제는 각자의 종교관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포교에 걸림돌인 것이 현실이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만, 부모를 신성시하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율법적으로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였다. 공경이란 공양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적인 도움을 베푸라는 뜻이다.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도덕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우선 순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을 통해서 순종의 차원에서 경칭의 차원으로 바뀐다.

22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 니라

남자라면 성인이 되면서(또는 결혼을 하면서), 여자라면 결혼을 하면서 가정의 주도권을 남편에게 넘기게 된다. 늙은 부모는 가장이 된 아들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뒤에서 후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한다.

성경에는 늙은 어머니를 내어 쫓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다. 늙은 어머

니를 배려하라는 뜻이다.

**26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
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19:26)**

이 말씀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집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엄마와 딸처럼 지내지 않는 이상 분가해서 사는 것이 서로에게 편리하다. 함께 지내면 좋은 점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다. 편리한 것이 더 소중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유익한 것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소가 있으면 뒤통수다끼리가 많지만, 소 때문에 얻는 유익이 훨씬 크다. 하물며 사람인데 그로 인한 유익이 얼마나 많을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덕이요, 복이요, 상급이다.

소는 말이 통하지 않고, 부려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은 정을 나누고, 서로 섬기며 희생하지 않는가? 마음과 정성의 문제다.

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처럼 고통스러운가? 대가족제도를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는 다 같이 한 집에 살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으니, 그래도 형제와 자매끼리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모여 사는 것이 복이다. 다 같이 한 교회 섬기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은 회사 다니고, 같이 여행도 다니는 것이 복이다.

특히 성경에서는 부모를 즐겁게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재롱피우는 자녀를 보고서 평생 해야 할 효도를 다 했다는 말까지 있다. 그만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큰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할 것인가?

**8 네 아들이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1:8)**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성경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뜻이다. 신앙 생활 잘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20 내 아들이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잠6:20)

-아비의 명령; 가문마다 명령이 있다. 그 가문만의 전통이기도 하고, 아킬레스건이기도 한 어떤 명령이 있다. 보통 그것은 건강과 가업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은 명심하는 것이 복이다.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10:1)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15:20)

-무엇이 미련인가? 부모님께 대해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다. 부모의 약점은 누구나 다 안다. 부모 자신도 안다. 그래도 그 약점이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곧, 그 부모를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부모도 그 자녀에게 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된다.

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23:25)

-요즘 부모님들은 유교적이지 않다. 한국 사회가 이제는 유교적인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몇천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에도 진리의 말씀이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정답이다. 마땅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안전한 것이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정교분리의 중요성

성경: 요한복음 18장 36절

Tag: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18:36)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다.

-기독교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정훈 교수의 기독교와 선거를 중심으로)

*오늘 용어는 생소할 수 있으나, 이들이 현재 교회를 신좌파로 물들이게 하는 자들이고, 간첩들이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는 기독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탄생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컸다.

-한국의 건국은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

-현재 한국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유럽-북미의 신좌파의 성정치, 성혁명 정치투쟁과 '정치적 올바름 PC'을 교회 내에 확산 시켰다. (특히 성공회)

1. 복음주의를 표방한 교회 내 좌파 세력

-신좌파 정치적 운동을 교회 내에서 확산 시킴.

-'청어람 ARMC' -로잔운동에 뿌리를 둠.

+근본주의적 교회를 부패-혐오 세력으로 규정

+동성애 옹호

+극단적 패미니즘

+다원주의적 신앙(종교다원주의)

- +이것을 교회개혁의 방향으로 제시
- +단체(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한국, 복음과 상황)
- +언론(뉴스앤조이)

2. 북한을 옹호하는 교계활동들

- 개척자들
- 공의정치포럼
- 교회개혁실천연대
- 교회2.0목회자운동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특히 국보법폐지활동
- 기독교청년아카데미
- 담쟁이숲아카데미
- 성서한국
- SFC사회변혁국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 평화누리
- 하나누리
- 희망정치시민연합
- 희년함께

3. 동성애 정치투쟁은 사회주의 혁명 그 자체.

- 이들은 철저히 기독교를 적으로 규명한다.
- 동성애 운동은 기독교를 타겟팅하는 운동이다.
- 자본주의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교회를 무너뜨려야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
- 68혁명은 서구가 구축한 근대성(modernity)을 해체하는 저항의 이데올로기.
- 서구의 근대성은 사실상 프로테스탄티즘이 기초가 되어 형성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룩한 것.

-가장 기본적인 창조질서인 남-녀라는 성별을 해체해서 젠더화 함.

*분자혁명-생산의 모든 영역이 정치혁명 수단이다.

-서구 공산권의 몰락, 북한의 몰락으로 방황하던 좌파세력들이 신좌파 혁명 이데올로기를 수입하면서 의욕에 사로잡히게 됨.

기존의 준거 (이성적인 인간상)

다수적 - 백인, 남성, 어른, 이성애자, 토박이, 건강인(우파)

소수적 - 유색인, 여성, 어린이, 동성애자, 이민자, 환자.(좌파)

욕망경제의 모든 수준 ;개인, 부부, 가족, 학교, 활동가집단, 광기, 감옥, 동성애

*한국 좌파의 두 세력

-NL(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민족 해방 세력) ;주체사상 -다수파(한신계열)

-PD(People's Democratic revolution;계급 혁명세력) ;레닌주의

*사회구성체론 ;한국사회의 성격에 관한 이론

사회=사회구성체

NL의 시각:반미와 반기독교

-민족주의

-관료 독점 자본+외국 자본에 의한 한국 종속

-한국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식민지 해방을 위한 대안으로 주체사상을 제시

-반 제국주의 민족자주

-미국의 원조-서북지역의 기독교세력.(정치세력) 서북청년단

PD의 시각:혁명에 방해가 되는 교회

-계급투쟁 강조

한국 좌파의 반미, 반 기독교

-주한미군 철수, 사드배치 반대, 한미동맹 해체, -친이슬람. 동성애 정치투쟁도구

*신영복, 지하당 조직원을 교회에 심다

-CCC에 조직원 침투.